순마진 기록 중인 한전…국제유가·환율 상승에 비상

전력 판매 4개월 연속 흑자…국제 정세 악화에 재무구조 개선 적신호
국제유가 올해 첫 배럴당 90달러 돌파 연중 최고치 기록…환율도 상승

전력 판매에서 4개월 연속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암초를 만났다.

한전은 올 2월까지 전력 판매마진에서 4개월 연속 순마진을 기록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고 있었지만,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전력 구매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다시금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전이 최근 발표한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전의 전력 판매마진은 1㎾h 당 42원이었다.

지난 2월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1㎾h 당 165.5원으로 전월(165.6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력 구입단가는 전력 발전 원자재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1㎾h 당 123.5원으로 전월(138.9원)보다 15.4원 하락했다.

전력 판매단가와 전력 구입단가의 차를 의미하는 전력 판매마진은 1㎾h당 42원으로, 지난해 11월(54.1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배럴당 90달러 선을 웃돌았던 국제유가가 연말부터 70달러 선까지 하향 안정됨에 따라 발전사들의 발전비가 하락하면서 전력 구입단가 역시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 수익의 60% 이상이 전력판매비로 이뤄져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 판매마진 상승 등의 요소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의 최우선 요인이다"며 "전력 판매마진이 1kwh당 최소 20원은 넘어야 이윤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소 판매마진 추정액을 2배 이상 넘겼지만, 최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등이 치솟으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지난달 중동발 분쟁 조짐이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인 국제유가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13일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추가 인상도 예상되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지난 3월 13일 기준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9.72달러, 브렌트유는 84.03달러, 두바이유는 82.22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상승 그래프를 그려 지난 5일 기준 WTI는 배럴당 86.91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역시 비슷한 시점부터 가격이 급등해 이달 들어 올해 첫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이스라엘이 전면전 등 확전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을 재천명한 만큼 향후 사태가 악화돼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가 2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오일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대폭 뛰게 되면 발전사들의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 역시 높아지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SMP가 치솟게 되면 한전의 재무위기 타파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 시 한전은 10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등의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청년 농업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파트팜' 현장 점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지원방안 확대 계획 밝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16일 지역 내 첫 청년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현장인 '나주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20년까지 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 대상은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또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경영한 청년 농업인이다.

이에 따라 전남본부가 지난3월에 준공한 나주 세지면 소재 스마트팜 2개소를 포함한 총 1만㎡ 영농 부지에 2030세대 청년 농업인 2명이 이달부터 향후 10년간 농지 운영에 돌입한다.

정인노 전남본부 농지관리이사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 대용량 고객 부하차단 제도 도입

광역정전 예방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부하차단 제도는 고장 등 이유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세대의 전기공급을 10분 이상 중단한다.

전력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들의 추가 고장 위험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 이용 고객이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한전은 154㎸ 이하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중 참여 희망 고객(철도·병원 등 국민불편 초래 대상 제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해당 제도에 가입한 고객은 실적과 무관하게 1㎾당 1320원의 운영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감축전력 1㎾ 당 9만8200원의 동작보상금도 지급한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계통안전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해 동·서해안 소재 발전소의 생산 전력을 줄이는 등 발전제약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를 개선함으로써 제약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진주시와 K-푸드 수출 확대 협약

저탄소 식생활 동참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난 15일 진주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 식에는 김춘진 aT 사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등 ESG 실천 문화 확산 ▲진주시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공공먹거리 안정적 공급을 위한 먹거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a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진주시는 지난해 신선 딸기 수출 5200만 달러 등 총 61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식품을 수출해 신선 농산물 수출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KISA, ISMS-P 신규 인증 심사원 자격검정 시행

기업·기관, 인증 발급·갱신 결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신규 인증 심사원 양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ISMS-P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 및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자산의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각 기업·기관에서 수립하고, 관리·운영하는 조치 및 활동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한다.

ISMS-P 인증 심사원은 인증을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 기준에 따라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을 심사하고,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단체의 인증을 발급·유지·갱신한다.

KISA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ISMS-P 신규 인증 심사원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오는 7월 13일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필기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오는 10~11월 중 5일간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실기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함과 더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6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ISA ISMS-P 누리집(https://isms-p.ki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